

12일 Market Index			
코스피	8123.62	코스닥	1029.05
	(+359.67)		(+32.12)
금리 (미국 3년)	3.808	환율 (원/달러)	1518.30
	(-0.096)		(-10.60)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호실적 vs 원가급등 '정당한 보상' 공방

식품·유통 '성과급 갈등'

오리온, 부분과업 진행 후 17일 임금협상 추가 교섭 신세계 노조 "투명성 강화, 성과급 10%→15% 높아야"



4주 연속 기름값 하락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가까워졌다는 기대감에 국제유가가 3%대 하락한 가운데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도 4주 연속 소폭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둘째 주(7~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 주보다 리터당 0.5원 내린 2009.9원, 경유는 전주 대비 0.3원 하락한 2004.8원을 기록했다. 14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하고 있다. /뉴스

반도체·IT 업계에서 촉발된 성과급 및 보상 체계 논란이 최근 글로벌 실적 호조를 누리고 있는 식품·유통 업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은 사상 최대 실적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고유가·고환율 등 경영 환경 악화와 업종별 특수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성과 배분의 적정 범위를 둘러싼 노사 간 시각 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

식품업계에서는 오리온 영업노동조합(오리온노조)이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을 이유로 이달 초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돌입하며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오리온 노조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부분파업을 진행한 데 이어 전면 파업까지 검토했으나, 오는 17일 사측과 다시 임금협상 테이블에 앉아 추가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

오리온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은 기본급 인상 폭과 수당 체계 개선이다. 노조 측은 회사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배당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목표 상향과 수당 조절로 인해 직원들의 실제 급여는 오히려 줄었다며 전 직무 기본급 7.5% 인상과 기존에 합의했던 기본급·수당 비율 조정(6대 4→7대 3)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유통업계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신세계 노조는 최근 사측에 성과급 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지급 규모 확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노조는 성과급 지급률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일 것을 요구하는 한편, 성과급 산정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선 것을 촉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임금 인상 자체가 노사 협상의 핵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성과급과 특별보상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이 훨씬 커졌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실적과 경영 환경을 고려해야 하고 직원들은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관련 갈등이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사측은 노조의 이 같은 요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식품·유통업계의 특성상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IT 업계 수준의 보상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리온 사측은 업계 최고 수준

의 보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임직원 평균 급여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의 실적 성장이 국내 사업 성과가 아닌 해외 법인의 선전 덕분이라는 점도 사측이 난색을 표하는 이유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오리온의 국내 매출은 0.4% 성장하는 데 그쳤지만, 중국·베트남·러시아 등 해외 법인이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국내 영업직원들의 기여도와 해외 성과를 전적으로 연동하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1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6 푸디노베이션 포럼' 글로벌 먹거리 된 'K-푸드'

메트로경제는 창간 24주년을 맞아 'K-food, 세계인의 먹거리'라는 주제로 오는 6월 17일(수)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2026 푸디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제 'K-푸드'는 전 세계인의 일상을 파고들며 글로벌 식문화의 새로운 주류로 당당히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고유의 맛과 건강한 식문화를 담은 K-푸드는 전 세계 유수의 마켓과 식탁을 점령하며,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행을 넘어 전 세계가 매일 즐기는 '세계인의 먹거리'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의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대표 식품 기업들의 발자취와 성공 전략을 조명하는 푸디노베이션 포럼을 준비합니다. 이번 포럼은 풀무원, 대상 등 글로벌 무대에서 K-푸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기업들의 생생한 현장 스토리를 공유하고, 대한민국 식품산업이 마주한 다음 단계의 도약과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독창적인 제품 개발 스토리부터 한국 식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계화에 성공한 비결까지, K-푸드의 진정한 매력과 가치를 묻는 다채로운 강연이 중심이 될 예정입니다. K-푸드가 지속 가능한 글로벌 트렌드로 이어지기 위한 방향성을 진단하고, 동반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될 계획입니다.

- 주 제 : K-food, 세계인의 먹거리
- 일 시 : 2026년 6월 17일(수) 14:00~17:0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3F)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 의 : 푸디노베이션포럼 사무국 02)721-9818
- 참가비 : 사전 등록시 무료
-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1500원 환율' 투기세력 엄정 대응

정부, 외환시장 교란행위 단속 역외 NDF 거래 투기 등 중점

정부가 원·달러 외환거래 관련 해 투기 의혹을 보다 세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역외선물환(NDF) 거래 등이 주요 감시대상이다. 한편 이 같은 감독 강화가 거래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유관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함께 외환시장 내 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섰다. 미 달러화 대비 원화 값이 1500원을 웃도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당국은 원화 약세를 악용하는 투기 세력에 대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역외 NDF 거래에서의 투기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이 거래는 원금의 실제 교환 없이 차액만을 주고받는다. 파생

상품의 하나로,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만기 시의 환율과 만기가 도래했을 때 실제 환율의 차액만을 달러로 정산한다.

따라서 원화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화 값의 하락 또는 상승에 베팅할 수 있다. 이에, 투기 거래가 한쪽에 몰릴 시 환율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역외 NDF 거래를 국내 외환시장 DF로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뉴욕과 런던 시장에서의 역외 시간대 거래는 실시간 점검이 어려운 만큼, 국내시장으로 들여와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수출입기업의 이른바 '리드엔 래그' 거래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



M-커버스토리

中 장악 ESS, 북미 틈새 노리는 K-배터리

K-배터리, 실적 방어

LG엔솔, 1분기 ESS 출하 급증 글로벌 점유율 1.4%→2.7%



LG에너지솔루션 ESS 전력망 컨테이너 제품.

전기차 시장 부진으로 성장 정체에 직면한 K배터리가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과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앞세워 ESS와 보급형 전기차 시장을 장악한 데 이어 전고체·나트륨이온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도 속도를 내면서 국내 업체들은 북미 ESS 시장을 발판으로 반격에 나서

는 한편 차세대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최근 글로벌 ESS 시장에서 존재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의 1분기 ESS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53% 늘어나 글로벌 점유율이 1.4%에서 2.7%로 올랐다.

삼성SDI의 같은 기간 ESS 출하량도 34% 증가했다. 전기차 수요 둔화로 배터리 업황 회복이 지연되면서 ESS가 실적 방어와 신규 수요 확보의 핵심 시장으

로 부상하고 있다. ESS는 가격 경쟁력이 시장의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국내 업체들도 LFP 배터리를 앞세워 공급 대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 생산에 나섰다. SK온도 미국 조지아 공장 일부 전기차 배터리 라인을 ESS용 LFP 라인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북미 ESS 시장은 국내 업체들이 중국과 다시 맞붙는 핵심 무대로 꼽힌다.

<3면에 계속>
/원관희 기자 wkh@metro



메트로 한줄뉴스



▲나경원 "오세훈, 7월 전 사퇴하면 '3연임 제한' 안 걸려" 재선거 재차 촉구 /사진 뉴스
▲국힘 "장동혁 거취 논할 단계 아냐, 사퇴 밝힌 적 없어"

▲與 지도부, '정청래 사퇴론'에... "연임 도전 시 사퇴규정 없다"
▲오세훈·한동훈 생환에 대권지지도 야권 중심 재편...여권 김민석 선두

▲정부, 탈모 건보 적용 추진... "하반기 국민 의견 수렴"
▲서울 종각·을지로서 쿼어퍼레이드...인근서 반대 집회도